

“불교음악 사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임란경 씨 '민속음악 속의 불교' 불교평론에 발표

“불교는 한민족의 정신과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왔고 전통예술문화의 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음악학자 임란경 씨(사진)는 2012년 불교평론 가을호 '민속 음악 속의 불교' 논문을 통해 불교와 민속음악이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피고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논했다.

임씨는 “이 논문은 조선시대 예인집단이 사라진 현대에서, 불교와 민속음악의 관계를 고민해 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불교 민중 음악은 단순히 불교적 가사를 음악에 차용했느냐 승가에 소속된 예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불교 민중 음악의 생성 배경과 의미 및 그 전승 형태 등을 살펴보고, 현대불교 음악에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상여소리 굿음악 양주 별산대 놀이는 기존 민중 음악에 불교적 가사를 차용했다. 강원도의 '미리 타 불' 소리, 전남지방 '관음보살' 등 상여소리의 연행 형태를 살펴보면 불교적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굿음악인 무가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사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교 용어인 '염불'은 굿음악 속에서 전용되고 있는데, 굿판에서 연주하는 다양한 무가(巫歌)와 무악(巫樂)을 염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소리 회심곡 등은 불교 집단에 의해서 불려지던 노래다. 임씨는 “선소리는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연행되는 잡가 중 서서하는 소리로 경·서도 선소리

산타령과 남도 선소리로 구분된다. 특히, 산타령은 사당패 소리를 기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19세기 말에 유랑예인이었던 사당패에게서 불박이 예인인 선소리패로 산타령 당당층의 전이가 일어나면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가에서 불사(佛事)를 연행한 집단인 사당패는 '재가불교집단'이라 할 수 있다. 사당패의 활동 모습이 몇몇 사찰의 감로탱화에 묘사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유랑예인집단의 전통연회는 외출타기, 쌍줄타기, 솟대타기, 쌍줄백이(솟대타기의 일

민속음악, 미타·관음 염불신앙 내포

불교의례음악에 뿌리둔 '회심곡'

상여소리 등에서도 차용

불교의 민중 접근 노력의 반증

중), 땅재주, 방울 쳐올리기, 탈춤, 접시돌리기, 인형극, 사당춤, 검무 등이 있다.

회심곡은 절 안에서 범패승이 부를 때는 4·4조 율격의 불교 가사를 엮모리장단과 같은 일정한 장단에 맞춰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굿중패, 절걸림패, 탁발승 등에 의해 음악적 어법을 조금 달리하여 절 밖에서도 연행되었는데 이를 따로 염불회심곡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절 안에서 불교음악의 한 곡으로 연행되었던 회심곡이 절 밖에서 연행되면서 세속화하고 민속음악의 레퍼토리로 변해갔다. 이런 변화는 사당패가 불교적 역할을 상실하고



불교음악은 다양한 형태로 민중과 호흡해 왔다. 조선시대 불사를 연행한 사당패는 재가불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은 대흥사 감로탱화 중 '유랑예인의 쌍줄타기' 모습.

쇠되하던 시점에서 시작된다.

임 씨는 “조선조 승유익불정책으로 사당패가 날로 쇠되하면서 이들의 시주로 운영해왔던 사찰의 재정은 기울어갔다. 이에 가부의 기능을 가진 승려가 무리를 이루어 민간에 나가 시주를 걷게 되었다. 이들은 가부에 능한 승려들로, 그 무리를 굿중패라 한다. 굿중패는 다양한 기예로써 건립에 나섰지만 이 또한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쇠되하고 만다”고 설명한다.

사당패와 굿중패가 쇠되하자 불교 사찰에서는 사

찰 운영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막히게 됐다. 이에 사찰에서는 자구책으로 남걸림패를 고용해 시주를 걷었다. 사찰에 고용되어 불사를 하는 남걸림패는 다른 걸림패와 변별하기 위해 따로 절걸림패라 일컫어졌다. 이 절걸림패 또한 사당패처럼 재가불교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절걸림패는 건립을 할 때 고사염불을 하였는데, 고사염불은 고사선염불과 뒷염불로 구성된다. 뒷염불에는 평염불, 덕담, 반백이, 오조염불 등이 있다. 이 중 평염불은 탁발승들이 탁발하며 부르며 되면서

근래에는 탁발염불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다.

임씨는 “탁발승에 의해 성장된 평염불에서 염불회심곡이 나왔으며 이것을 경·서도 명장들이 수용하여 성장한 것이 현행 경기민요 회심곡이다. 불가에 뿌리를 둔 회심곡은 불교의례음악(회심회심곡)에서 탁발음악(염불회심곡)으로, 그리고 다시 세속음악(경기민요 회심곡)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다. 또한 기층음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민요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민요 중 상여소리에서는 회심곡을 차용한 대목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탁발승이 회심곡을 부르며 탁발하는 것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부정적인 소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조선불교통사》 인능화의 글을 인용해 설명했다. “오직 신세가 가난하고 도력 또한 보잘 것 없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들은 속칭 땀땀이중이라 하였는데 꿩소리도 따서 이르는 것이다”

불교적 요소가 가미된 민속음악의 바탕에는 불교의 내세관과 미타신앙, 관음신앙이 짙게 깔려있다. 대중 지향적인 불교 혹은 염불신앙 중심의 불교가 이러한 민속음악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불교에 뿌리를 둔 민속음악의 현존은 불교가 민중 가까이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속음악은 불교가 민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해 왔다.

임씨는 한국불교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맥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불교음악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족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통을 이을 수 있는 현대적 의미의 불교 음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탕카로 만나는 '티베트의 유산'

화정박물관 특별전...내년 3월 17일까지

티베트의 역사와 불교문화, 그리고 토착종교와 불교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2013년 3월 17일까지 평창동 화정박물관에서 특별전 '티베트의 유산'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화정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탕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탕카는 티베트의 불교화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티베트 불교문화 유산의 정수이기도 하다. 더불어 탕카의 제작 및 티베트의 불교문화 중 널리 알려져 있는 '티베트 사자의 서'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탕카 54점을 중심으로 티베트 공예품 31점도 선보인다. 2003년 대영박물관 런던 전시를 재구성하는 한편, 이후 수집한 새로운 작품들을 추가한 것.

'아바다나 갈빠라파'는 부처님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기초한 그림이다. 각종 사건들을 주인공의 전세(前世)에 있어서의 선악의 행위와 연결시켜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설화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

한 본생담(자타카)와는 달리 전세 선악의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 주인공이 반드시 부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불제자나 재가신자인 경우가 많다. 티베트에서는 일반 신도를 교화하는 교재로 널리 보급되었다.

문수보살의 화신 바즈라바이라바는 '죽음을 파괴하는 자', '아만타카(죽음의 신인 야마의 적이라는 의미)'라고도 한다. 티베트의 전설에 의하면, 죽음의 신인 야마가 티베트 지방을 휩쓸고 괴롭히자 사람들이 문수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이에 응답한 문수보살이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아만타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모습을 바즈라바이라바라 한다. 야마는 바즈라바이라바의 힘에 굴복되어 티베트 불교의 수호신으로 편입됐고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이밖에도 티베트 불교 남파파의 시조이자 [티베트 사자의 서]의 저자로 알려진 '빠드마삼바바(Padma sambhava)'와 13세기 무렵 티베트 불교 씨가파의 지도자로, 몽고제국의 왕족에게 티베트 불교를 최초로 전파한 인물인 싸까 판디타(Saskya Pandita, 1182-1251) 등이 대표 전시 작품이다. (02)2075-0122

정혜숙 기자



'티베트의 유산' 전시 2013년 3월 17일까지 평창동 화정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탕카 54점 등이 선보인다.

삼매와 예술이 만나 한국의 美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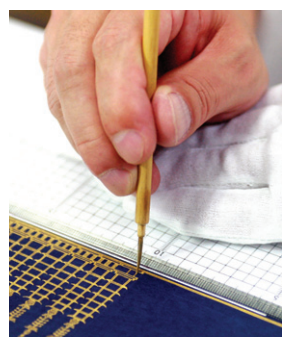
한국사경연구회 뉴욕展 개최

김경호 등 24명 작품 전시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가 뉴욕 플러싱 타운홀갤러리 초대전을 갖는다. 10월 12일~12월 30일까지 80일간 열리는 전시는 '삼매(SAMADHI)+예술(ART)=사경(SAKYEBONG)'이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외길 김경호 작가 외 23명이 전시에 참여, 금니사경, 은니사경, 주목사경, 묵서사경, 만다라사경, 공필사경, 자수사경, 민화사경 등 전통사경에서 현대사경까지 총 망라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회장 김경호 작가는 8개월에 걸쳐 완성한 최신작 '감지금니 7층보탑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을 선보인다.

김 씨는 "사경은 인간 정신이 최고로 응축된 삼매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예술이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미국 현지 언론인들과 예술인들에게 한국 전통사경의 아



름다움, 삼매의 경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한국 전통사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말했다.

부대행사로는 >10월 12일 한국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특강 >10월 12일 한국 전통 금니사경의 제작 시연회 >10월 13일 김경호 회장 작품 영인본 사인회 >10월 14일 한국사경연구회 참여 작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 한국의 사경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정혜숙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전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선택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코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B 인지구 26E

A/S 빠른 접수 10년 5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방)
▶ LED전구, DC 3V 백색·노랑·빨강

▶ 평생, 탐들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